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수강생 모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내달 10일까지 '2020년 하반기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 적응을 돕고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다는 취지다. 교육대상은 영농을 목적으로 정읍시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 예정자다. 신청 대상자는 내달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15회 60여 시간이다. 30여 명을 대상으로 ▲기능창업 및 경영전략 ▲작물별 재배기술 ▲일반농법과 친환경농법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업회계 ▲법률지식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불용 농기계 매각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농기계 중 내구연수가 경과하거나 고장 등으로 수리가 조금 필요한 불용 농기계 46종 99대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했다.

이번 매각은 지역 내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물을 거쳐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에 물품을 전시한 후 지난 20일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입찰을 진행하고 바로 개찰했다.

입찰에는 133명이 참여해 1인당 2대까지 기종별 최고가액을 제시한 농업인에게 낙찰됐으며 트랙터 등 28종 57대의 농기계가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낙찰된 농업인은 대금을 납부하고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거친 후 직접 인수해 가면 된다.

입찰에 참여한 보안면 김장근 농가는 "비록 불용물품이지만 조금만 수리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미남은 복분자를 좋아해”

롯데칠성, '고창·순창産' 활용 주스 출시 '기대감' 블랙보리·수박주스 이은 음료기업 협업사례 3탄

“미남은 고창 복분자를 좋아해” 전북 고창군의 최고품질 복분자를 사용한 복분자 음료가 출시돼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내 음료업계 1위 기업인 롯데칠성음료가 고창과 순창의 복분자만을 사용한 과일주스 ‘미남은 복분자를 좋아해’를 출시했다.

제품은 최근 커피 외에 다양한 맛의 디저트 음료를 찾는 소비자 욕구 증가와 함께 웰빙 트렌드 확산에 따라 음료 한 잔을 마시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복분자는 ‘요강이 소변 줄기에 뒤집어진다’고 하여 붉은 놀라운 이름이다. 전통적으로 복분자는 기력과 정력을 보강하는 상징 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복된 분들이 자시는(드시는) 음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고창의 복분자는 미세밀이 풍부한 황토와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달콤쌉쌀한 특유의 맛과 향에 반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마케팅 관계자는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이미 전북 고창은 국내 최고품질의 복분자

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 지역과 연계한 마케팅 강화를 통해 복분자 음료에 대한 범업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 복분자 음료 출시는 최근 블랙보리 수박주스 이은 지역 농특산품의 음료기업 협업사례 3탄이다.

이에 군은 코로나19이후 면역력과 건강 기능성 음료·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고창군과 한국체육대학교가 ‘건강식품 및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복분자와 수박, 멜론, 체리, 발효식초 등 지역 명품 농특산품을 기능성 스포츠음료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농생명 식품산업을 균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식품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농산물 구매 증가 효과로 농업인들은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내 음료업계 1위 기업인 롯데칠성음료가 고창과 순창의 복분자만을 사용한 과일주스 ‘미남은 복분자를 좋아해’를 출시했다.



정읍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3일간(화, 목, 금) 지역 내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하반기 농업기계 순회교육과 정비지원을 추진한다.

정읍시, 찾아가는 농업기계 정비지원

11월까지 100여 개 마을 대상

정읍시가 농기계 수리가 쉽지 않은 농촌 마을을 찾아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 기술교육과 정비지원으로 농업인 편의 제공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3일간(화, 목, 금) 지역 내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하반기 농업기계 순회교육과 정비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순회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힘든 농가를 위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다. 임대사업소와 거리가 먼 100여 개 마을을 순회하며 경운기와 소형 굴삭기, 관리기, 예취기 등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현장 순회 교육 시 3인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정읍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동력분무기 등 하절기에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위주로 고장아жит 부분을 응급처치하는 방법과 보관요령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배양해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있는 주행형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추돌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후미에 반사판 등을 부착해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한편, 주행형 농업기계는 야간 주행시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일반사람 사고에 비교해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7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기계 고장 시 수리 여건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한 순회 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수리 부담을 덜어 농가의 실질적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력분무기 등 하절기에

정읍시, 찾아가는 농업기계 정비지원

11월까지 100여 개 마을 대상

정읍시가 농기계 수리가 쉽지 않은 농촌 마을을 찾아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 기술교육과 정비지원으로 농업인 편의 제공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3일간(화, 목, 금) 지역 내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하반기 농업기계 순회교육과 정비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순회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힘든 농가를 위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다. 임대사업소와 거리가 먼 100여 개 마을을 순회하며 경운기와 소형 굴삭기, 관리기, 예취기 등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현장 순회 교육 시 3인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정읍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동력분무기 등 하절기에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위주로 고장아жит 부분을 응급처치하는 방법과 보관요령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자가 정비기술 능력을 배양해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있는 주행형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추돌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후미에 반사판 등을 부착해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한편, 주행형 농업기계는 야간 주행시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일반사람 사고에 비교해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7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기계 고장 시 수리 여건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한 순회 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수리 부담을 덜어 농가의 실질적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력분무기 등 하절기에

‘정읍사 문화제’ 대폭 축소... 안전한 축제로~

‘제례 중심’ 소규모로 진행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와 문화예술행사 등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정읍시 대표 축제인 ‘정읍사 문화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안전한 축제로 개최된다. 31년간 이어온 정읍사 문화제가 축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2020 제31회 정읍사 문화제는 오는 9월 28일과 27일 2일간 정읍시공무원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다. 하지만 (사)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는 지난 20일 긴급 이사회 회의(고문 포함)와 정읍시와의 협의를 통해 관람객의 밀집이 예상되는 기념식과 정읍사 가요제, 각종 체험프로그램, 농특산물·간식·먹거리 부스 운영 등의 세부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넥스트로컬’ 참여 서울 청년들 고창서 창업탐방

고창이 최근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들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 넥스트로컬 참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탐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수 의례와 여인 제례, 부도상 시상 등 문화제 명맥을 잇기 위한 제례 중심으로 행사가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사 문화제는 지난해 기준 3만여 명이 찾았던 지역 대표 축제로 축소 개최 시 지역 경제에 적잖은 타격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제전위와 시는 관람객과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행사를 축소 진행하고, 내년 축제 준비에 힘을 더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이후에 따라 채수 의례와 여인 제례, 부도상 시상 등 문화제 명맥을 잇기 위한 제례 중심으로 행사가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사 문화제는 지난해 기준 3만여 명이 찾았던 지역 대표 축제로 축소 개최 시 지역 경제에 적잖은 타격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제전위와 시는 관람객과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행사를 축소 진행하고, 내년 축제 준비에 힘을 더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읍=김대환기자

팀 13명으로 꾸려졌다.

8개 팀 중에는 달차캡퍼니를 비롯해 농식품 관련 아이템이 5개 팀이고, 보더리스농활과 같은 관광 관련 아이템이 3개 팀이다.

아들은 9월까지 지역자원을 조사하며 고창을 좀 더 이해하고, 고창의 자원을 바탕으로 창업까지 추진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CCTV 관제로 특수재물손괴 의심 용의자 검거 기어

정읍시 통합관제센터

정읍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 임시영 관제요원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특수재물손괴 의심 용의자의 도주 경로와 정보를 제공해 검거에 기여한 공으로 정읍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오전 5시 15분경 중앙로 소재 국민은행 정읍지점에 불상자가 벽돌을 유리에 던져 창문을 시도하다 경비업체 비상벨이 작동하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임시영 요원은 112상황실 전후 연락을 받고 주변 CCTV를 분석, 현장 모니터링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도주 경로 등을 경찰서로 통보 조치해 신속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CCTV 920대를 관제 요원 9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절도와 폭력 등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생활 안전 저해 요소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